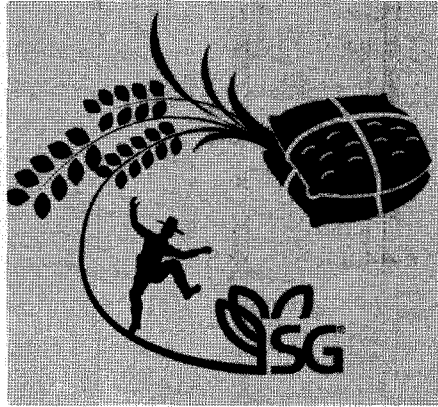


SG한국삼공, '논 유색벼' 광고 실시 전국 8개 지역 선정, 경남하동부터 시작

SG한국삼공(주)(사장 한태원)는 2011년도 '논 유색벼' 광고를 실시할 전국 8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유색벼 광고는 지난 5월 13일 경남하동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의 성, 경북안강, 경기이천, 전북군산, 충남당진, 충남서천, 전남함평 지역 순으로 실시한다.

SG한국삼공은 지난 2010년 3월 8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논 유색벼 광고 기술이전' 실시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이미지 및 제품홍보를 위해 '쌀사랑 SG 다카바' 논 유색벼 광고를 전국 9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유색벼 포장에서 얻은 쌀 전량을 각 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도 했다.



「2011, 제9회 농산업포럼」 성료 농약업계 현안 대표로 정봉진 동부한농 상무 발표



'2011 제9회 농산업포럼'이 지난 5월 13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성료됐다. '국내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업발전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정 승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농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업부문 영향과

대책을 제안해 주목 받았고, 김규욱 농식품부 사무관은 정부의 농기자재 추진정책을 설명해 포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2부 농자재산업 전문가 토론시간에 업계 대표로 참석한 정봉진 동부한농 상무는 "최근 친환경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농식품부 예산의 90%가 투입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한 농약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에 9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발언하고 "현재 국내 농약개발 수준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요즘 개발된 농약은 자연환경 무해성이 확인돼야 등록, 판매할 수 있어 농약은 수출산업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정부에서 R&D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면 농약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동방아그로, 창립 40주년 이벤트 실시 ‘알리세 입상수화제’ 구입고객 대상, 퀴즈 이벤트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염병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인과 더불어 40년을 이어온 감사의 일환으로 원예용 나방 전문 살충제인 ‘알리세 입상수화제’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알리세 입상수화제’ 구입고객은 제공된 응모엽서에 정답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 31일 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경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총 4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동방아그로측은 “앞으로도 실질적 사용자인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보다 많은 혜택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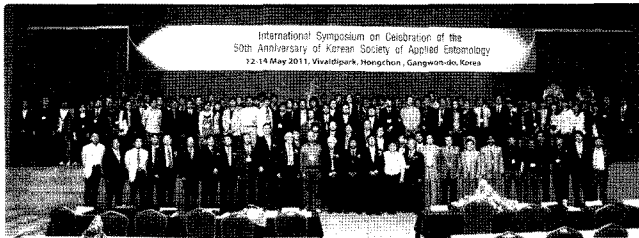


한국응용곤충학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창립 50주년, 아·태지역 7개국 참여 대성황 이뤄

한국응용곤충학회(회장 안용준)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응용곤충학 분야 학자들이 각국의 응용곤충학 분야 연구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에는 물론 일본, 호주, 중국, 대만,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모인 응용곤충학 연구자들



은 아시아 응용곤충학 현황과 미래 △곤충연구의 신기술 △한국의 해충관리 연구현황과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2박 3일간 열

된 토론을 벌였다.

안용준 응용곤충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응용곤충학 연구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응용곤충학의 발전방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학회가 세계 응용곤충학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 작물보호협,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 교육」 개최 ‘소비자파워유저 대상, 농약의 과학적 이해 제고’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2011 소비자 파워유저,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 제1기 교육을 지난 5월 12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임원진 4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사장 요그 레바인) 대 전공장에서 강사로 나선 김경무 부장(바이엘크롭사이언스 기업영업팀)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체계」 및 「농약의 올바른 이해」의 이론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 교육생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강의 이론후, 철저한 위생과 관리속에 생산·출하되는 생생한 현장을 견학했다.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으로 이동한 교육생들은 정광진 부장(동부한농 친환경농업센터장)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란?」강의와 함께 추부갯잎 GAP인증농가의 재배현장을 둘러본 후 직접 수확하고 시식하는 현장실습 교육도 가졌다.

또한 제2기 교육은 지난 5월 1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임원진 40명을 대상으로 신젠타코리아(주)(사장 김용환) 익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제2기 교육 강사로 나선 유용만 교수(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는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를 했으며, 생산현장을 견학한 교육생들은 농약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충남 부여 정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조성필 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 기획홍보부)의 「GAP제도와 안전농산물」이론 교육과 함께, 농산물 출하현장 견학과 토마토 우수 재배자인 최종길씨(충남 부여군)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수확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농업인의 땀과 노력을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2011 농약사용지침서」책자 발행 ‘3만부 주요기관·농업인·시판상 등에 배포’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2011 농약사용지침서(5×7판, 1,312면)」 책자 3만부를 주문 제작, 주요 기관 및 농업인, 시판상, 회원사 등에 배부했다. 2011년 5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품목에 대한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특징 등을 용도별, 품목별로 상세히 수록한 동 책자는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올해 농약사용지침서도

사용상 편의를 위해 동일성분 농약은 계속 병합 표기했으며 「작물별·병해충별 적용농약 찾아보기」를 권말부록으로 수록했다”면서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농약의 라벨(포장지)을 잘 읽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